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9일 기도

- 기 간: 2025년 6월 17(화) ~ 25일(수)
- 방 법: 미사 전·후 기도문 함께 봉헌
- 기도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가톨릭기도서 109면/ 매일미사 186면)

- 지 향: 민족의 화해와 일치

6월 17일(화): 남남갈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6월 18일(수): 상호 존중을 위하여

6월 19일(목): 평화의 일꾼을 위하여

6월 20일(금): 이산가족과 북향민(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6월 21일(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6월 22일(일):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6월 23일(월): 군비경쟁 중단을 위하여

6월 24일(화):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6월 25일(수): 평화를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049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74 T 02-460-7695 E hwahai3217@cbck.kr

## 6월 17일(화) 남남갈등의 치유와 회복

첫째 날, 남남갈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목상글〉

올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혼란과 갈등 속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치적 불안정 속에 들려오는 불안과 분열의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선한 양심을 지닌 많은 이들이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며 목소리를 내지만, 그 외침이 외면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창조주께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이 신비를 바라보며, 진정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인간됨’이라는 것을 아기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불안한 마음, 서로 다른 시각들, 서로 다른 해결책들 사이의 대립 가운데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임을 성탄은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 5,9 참조) 그러나 참된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 실현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비록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져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함께 공동의 선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따뜻한 인간 존중의 자세’로 지혜롭게 이 격동을 헤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모습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기 예수님의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따뜻한 체온을 서로 느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인간성으로 빛나는 참된 평화와 희망이 차오르길 희망합니다.

-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대주교, 2024년 성탄 메시지 中 -

### 〈기도문〉

사랑이신 주님,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등돌리며 대립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당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귀기울이며  
저희가 지닌 깊은 상처, 아픔, 불안들을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원하시는 참 평화를 이루어  
행복한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목주기도를 바칩니다.

## 6월 18일(수) 상호 존중을 위하여

둘째 날, 상호존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묵상글〉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형제자매들에게 특별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혈통이 어떠하든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이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신앙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에페 2,18,19). 하느님의 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인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서 결코 어떠한 분열이나 차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보편 구원의 사명을 그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요한 10,10)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사명에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집단도 결코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단순하고도 장엄한 말씀으로 바치셨던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

이 기도는 우리들의 생업이고 우리들의 증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람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떠도는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산명 10,18) 우리 모두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 제22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13항(1989년 1월 1일) -

## 〈기도문〉

일치의 근원이신 주님,  
온전히 알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저희의 왜곡된 시선이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다양성을  
옳고 그름의 흑백으로 판단하고 존중하지 않음에서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지닌 연약함과 파괴성을 성찰하게 하소서.

주님의 창조 섭리에서 드러나는  
다양성 속 포용적 사랑을 지향하게 하시어  
남·북한이 반목의 시간을 마치고  
한 민족을 넘어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임을  
서로가 인식하게 하시어  
상호 존중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지상에서의 마지막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통해 원하셨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요한 17,21참조) 공동체를  
성령께서 이어주신 사랑의 끈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6월 19일(목) 평화의 일꾼을 위하여

셋째 날, 평화의 일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묵상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참으로 평화를 ‘만듭니다.’ 그들은 사회 안에서 평화와 우정을 다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남기십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 5,9).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집에 평화를 빙니다.” (루카 10,5) 하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신자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과 함께” 평화를 위하여 일하라고 권고합니다 (2티모 2,22 참조).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지기” (야고 3,18) 때문입니다. 일치는 갈등보다 낫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의문이 들 때라면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쏟으시다” (로마 14,19) .74)

- 교황 프란치스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88항 -

### <기도문>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기도-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6월 20일(금) 이산가족과 북향민(북한이탈주민)

넷째 날, 이산가족과 북향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묵상글〉

고통은 유산입니다. 초기 교회 교부들은 순교자들의 피가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은 많은 씨앗, 아주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충실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순교자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 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 그곳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은 이산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가져 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나라의 분단이 빚은 고통입니다. 오늘 제가 명동 주교좌 성당의 제의실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한국을 둘로 갈라놓은 휴전선의 철조망으로 만든 그리스도의 가시관입니다. 저는 그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 그것은 분단의 고통, 헤어진 가족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남북한은 한 형제입니다.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머니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분단의 고통은 매우 큼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단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 방한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기내 기자 회견 中-  
(교황 특별기, 2014년 8월 18일 월요일)

### 〈기도문〉

분단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같은 모습,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나라의 분단이 빚은 고통으로 고향을 떠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짐의 아픔을 마음속 응어리로 품고 사는  
이산가족과 북향민들을 가없이 여기시어  
이산의 아픔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애로운 은총과 보살핌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또한 이들의 아픈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시어  
아픔 속에 살았던 시간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당신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6월 21일(토)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다섯째 날,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목상글〉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숙고하면서, 무엇보다 평화를 위한 대화라는 도전을 짊어 지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국가와 정부 수반에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국민은 사회 차원에서 실제로 평화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평화를 위한 대화와 공동 노력에서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화와 공동 노력이 정당하게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이는 민족의 공동선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유와 독립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와 대등한 조건에서 이 대화를 수행하고, 갈등 중에 있는 당사국을 지원하여 대화의 경로, 합리적인 화해의 경로, 그리고 정당한 평화의 경로를 찾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제16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11항(1983년 1월 1일) -

### 〈기도문〉

지혜의 임금이신 주님,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했던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셨듯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내려주시어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평화를 위한 대화와 공동 노력을 통해

인간의 법을 넘어서는 하느님 법의 진리를 따라가는

화해의 길, 평화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6월 22일(일)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여섯째 날,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묵상글〉

대화가 없는 한반도의 상황도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오랜 시간 소통이 단절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남한과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대화가 중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9·19 군사 합의는 무력화되었으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협하는 군사 훈련은 쉴새 없이 지속되는데, 전에 없던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의 여파까지 ‘냉전적 대결’을 부추기는 형국인데, 이와 같은 정세 속에서 남북 관계도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즈음의 남북 관계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위기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지도자는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를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을 전쟁으로 정복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헤어질 결심’을 천명한 북한의 태도는 무척 완강하여 보입니다. 남북 관계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상태에 가까워진 지금,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께 지혜를 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제 탓이오!’ 하며 가슴을 치는 교회는 북한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부터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대적 분단 구조 안에서 우리 또한 그들을 진정 ‘동포’로 대하였는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주교,

2024년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中 -

### 〈기도문〉

사랑이신 주님,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지금,  
이념과 사상,  
우리와 결이 다른 시선을 넘어  
주님의 자녀인 하나의 존재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는지  
근본적인 시선을 성찰하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과 시선으로

끊어진 대화를 준비하며  
일방적이 아닌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상호존중으로  
응답의 때에 기꺼이 환대하고  
새로이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통합과 평화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6월 23일(월) 군비경쟁 중단을 위하여

일곱째 날, 군비경쟁 중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묵상글〉

전쟁을 예방할 수 없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북핵 문제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근래에 와서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진 각국의 국방비 증액도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군비경쟁은 가난한 약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인류의 극심한 역병”이라고 표현한 교회의 가르침을 되새겨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난 세기 냉전과 군사적 대립 속에서 “군비경쟁이 계속된다면 그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가공할 온갖 재앙을 언젠가는 일으키고 말리라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여야 한다.”(사목 헌장 81항)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르는 신앙인들은 첨단 무기와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인간의 폭력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평화를 믿고 이를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교회는 ‘힘의 균형’을 넘어서는 진정한 평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주교,  
2022년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中 -

### 〈기도문〉

진리이신 주님,

무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경쟁이  
과학 기술의 힘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첨단무기 개발은 '기술'이 되어  
박수갈채를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경제 발전과 국익의 수단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은  
버튼 하나로 서로를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참 평화는,  
당신의 자녀인 저희가 지향해야 할 참 평화는  
사랑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아  
겨누는 총을 내려놓는 대신 손과 손을 마주 잡고  
서로의 존재를 따스하게 포옹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죽음으로 견제하는 것이 아닌  
생명으로 상생하는 것이 참 평화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알려주신 이 진리를  
항상 외칠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6월 24일(화) 전쟁의 희생자를 위하여

여덟째 날, 전쟁의 희생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묵상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하느님 이름으로 …… 학살을 멈추십시오!”라고 외치시며, “다양한 지역 전쟁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국민의 운명을 다스리는 이들이 20세기 비극의 교훈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라고 쓰라린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예기치 않게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를 갈망하는 온 인류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전쟁터로 내몰린 군인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희생당한 무고한 하느님 백성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전쟁의 참상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합니다.

전쟁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생존마저 위협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 노인들, 아이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소는 선의를 가진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강력히 반대하는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일부러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전쟁이 초래하는 불행과 불의 때문에, 교회는 선하신 하느님께서 오랜 전쟁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모든 이가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07항)라고 가르칩니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주교,

2022년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中 -

#### 〈기도문〉

위로자이신 주님,

70여년 전 이 땅은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총칼을 겨누고 죽이는

비극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군인으로 끌려왔던 젊은이들,

총성과 포화를 피하지 못한 수많은 노인과 어린이들이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슬픔과 통한의 땅이었습니다.

저희가 겪은 역사를 불쌍히 여기시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힘으로 써주소서.

오늘날 지구 공동체의 이웃들이 겪고 있는 모든 전쟁 속에서

평화를 끊임없이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전쟁의 명분과 가시적 이득에 쉽게 외면당하는 생명의 존귀함과

가장 약한 이들의 생명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전쟁의 희생을 치른 이 땅에서 자라난 저희가

전쟁 종식을 위해 평화를 외치고

전쟁 속 희생당한 모든 이들,

그리고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 안에 당신께서 늘 함께 해 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6월 25일(수) 평화를 지향하는 회심

아홉째 날, 평화를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묵상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미사에서 하느님께 평화와 화해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한반도 안에서 하나의 특별한 공명(共鳴)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오늘의 미사는 첫째로,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한 가정을 이루는 이 한민족의 화해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무엇인가를 청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니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마태 18,19-20 참조). 그렇다면 온 민족이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청을 하늘로 올려 드릴 때, 그 기도는 얼마나 더 큰 힘을 지니겠습니까!

오늘의 제1독서는 재난과 분열로 흩어졌던 백성을 일치와 번영 속에 다시 모아들이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은 희망으로 가득 찬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미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의 명령과 분리할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께 돌아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신명 30,2-3 참조). 화해, 일치, 평화라는 하느님의 은혜들은 이러한 회심의 은총과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심이란,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미사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느님의 이러한 약속을 한민족이 체험한 역사적 맥락에서 알아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분열과 갈등의 체험입니다. 하지만 회심을 촉구하는 하느님의 간박한 부르심은 한국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을 제시합니다. 그 도전은, 참으로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질적으로 기여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여러분 각자가, 개인으로서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 불운한 이들, 소외된 이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들, 많은 이가 누리는 번영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복음적 관심을 증언하는가에 대하여 반성하도록 도전해 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이제 의식과 대립과 경쟁의 사고방식을 확고히 거부하고, 그 대신에 복음의 가르침과 한민족의 고귀한 전통 가치에 입각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요청합니다.

-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강론

서울 명동 주교좌성당, 2014년 8월 18일 월요일 -

### 〈기도문〉

주님,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의 이러한 순환 안에서 저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이 평화는  
마음의 빗장을 푼 이들,  
희망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빛을 탕감하는 이들,  
주님께 지은 죄를 두려움 없이 고백하는 이들,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닫아 버리지 않는 이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평화이오니,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아멘.

-교황 프란치스코, 제58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15항(2025년 1월 1일)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